



박병찬
한겨레신문 문화부장

선생님 자랑

어 그제 고등학교에 올라간 딸 아이가 싱
웃 글빙글 엄마와 수다를 떨고 있었다. 반
장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다느니, 대신 선도
부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느니 수다가 제법
길게 이어졌다. 고등학교 첫 인상이니 제 엄
마로서도 여간 귀하지 않은 정보가 아니었다.
새 학기 엄마들의 최대 관심사인 새 담임선생
님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돼 있었으니, 애 엄
마는 긴장감까지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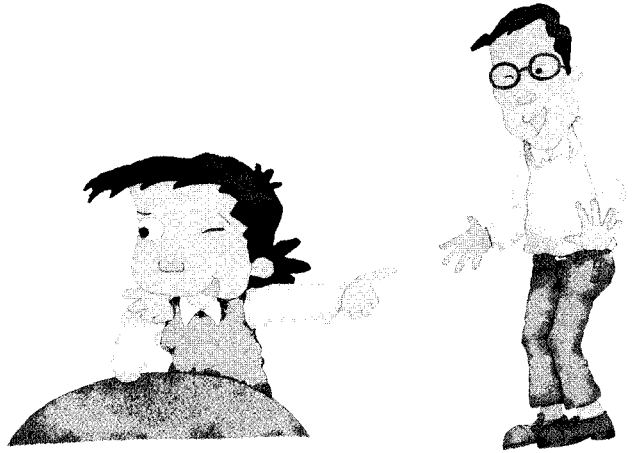
“엄마, 그런데 선생님이 나한테 보연이는
밥 먹는 모습이 참 이쁘더라. 그렇게 탐스럽
게 먹는 모습은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누군데, 조금 찌긴 했지만, 어디 가리는
거 봤어? 그리고 내 노래 듣더니, 보연이 성악
반 안 들면 음악 성적은 빵점이야 알았지, 라
고 하셨어.” 딸 아이는 의기양양했다. 애 엄마
도 으쓱하는 듯했다. 여기까지는 순전히 제
자랑이다. 저를 추켜세우는 선생님이 미워보
일 사람은 없었네니 선생님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는 선생님의
자랑스러워하는 딸 아이의 평가에 동의하

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화분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셨어. 새학기 시작할 때
면 항상 부산 떠는 환경미화 한다고 특별히
준비하지 말고. 선생님께서 그 화분에 씨를
뿌려 주실테니, 일년 동안 함께 꽃을 키워보
자라고 하셨어.”

선생님이 고마웠다. 새 학기만 되면 골치를
씩이던 걱정이 고마움으로 바뀌었다. 어떤 생
명인들 그렇지 않겠는가 마는 들풀이나 나무
의 생명만큼 신비로운 건 없다. 특히 3~4개월
동안이나 생사를 알 수 없는 무기질 상태로
있다가 봄이 되면 파란 싹을 돌아내고, 싹이
진 자리에 온갖 색깔과 모양의 꽃들을 피워내
는 것은 그 자체로 신비다. 툭툭 꺾어지거나
가볍게 바스라지는 곳에서 생명이 소생하니
어찌 경탄스럽지 않을까. 과학자들은 수십,
수백억년 동안 진화의 결과라고, 아주 건조하
게 설명한다. 그들의 설명이 수학 공식처럼
아무런 빛깔과 감정이 없더라도, 봄의 들판과
풀들에 대한 수천 수만년 계속되온 신비감을
저감시키지는 못한다.

어른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중까지
가르칠 것은 생명의 귀함이다



어른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중까지 가르칠 것은 생명의 귀함이다. 교육의 목표는 널리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온갖 문제와 병폐를 드러내는 이유는 생명 존중 정신의 결핍에서 비롯됐다. 핵, 전쟁, 테러, 인종청소, 종교분쟁 등 인간의 야만은 생명을 경시한데서 비롯됐다.

생명은 소유 보다는 존재를, 경쟁 보다는 공존을, 독점 보다는 나눔을, 싸움 보다는 평화를 지향한다. 그러나 요즘 학교는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법만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다. 일찌감치 아이들을 이긴 자와 진 자, 알짜와 껌데기로 나눈다. 그리하여 80%의 아이들을 어둡고 추운 곳으로 내몰아 버린다. 그곳은 가장 야만적이고 반생명적인 우생학의 실험장이 되어 버렸고, 우생학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아이들은 무조건 싸워 이기는 정글법칙을 배우고 몸에 익힌다. 학교가 들의 풀꽃이나 산의 나무처럼 각자가 가진 생명의 꽃을 피워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아이의 학교라고 예외는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0교시 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된다. 그래야 부모들도 안심한다고 한다. 새벽 별 보고 등교해 한 밤중에 돌아오는 아이는 불쌍하기만 하다.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나나 애 엄마의 모습이 처량하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얼까.

그러나 나는 아이의 교실에 37개의 작은 화분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생각하며 위로를 삼는다. 아이들이 가져온 화분에 부식토를 담고, 채송화며 봉숭아며 분꽃 씨를 뿌려주신 선생님을 생각하며, 교실의 평화와 희망을 꿈꾼다. 그런 선생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이가 대견스럽기만 하다. 아이는 반드시 생명에 반하는 여러 환경들을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아이의 화분엔 구절초를 심었다고 한다. 늦가을에나 꽃을 피울터이니, 아이는 오래동안 참고 기다리며 사랑하는 법도 배우리라.

선생님 만세! PPEK